

『종교와 문화』 제25호
서울대학교 종교문제연구소, 2013, pp. 161-187.

북미 한국불교학의 산 증인 로버트 버스웰(Robert E. Buswell, Jr.) 교수의 삶과 업적*

김 수 아**

- I. 서론
- II. 본론
 - 1. 로버트 버스웰과 한국불교
 - 2. 서구 불교학의 역사와 한국불교학의 연구 경향
 - 3. 로버트 버스웰의 한국불교학 연구의 특징
- II. 결론

I. 서론

로버트 버스웰(Robert E. Buswell, Jr., 1953~)은 미국에서 한국불교를 연구하는 학자이다. 그는 현재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로스엔젤레스 캠퍼스(University of California at Los Angeles, 이하 UCLA) 아시아언어문화학과(Department of Asian Language and Culture) 교수이자 UCLA 불교학센터(Center for Buddhist Studies) 연구 소장을 맡고 있다. 그가 한국불교학을 전공하게 된 것은 1974년부터 1978년까지 5년 동안 전라남도 순천 송광사에서 구산(九山, 1910~1983)의 지도하에 참선 수행 중 구산의 권유로 보조국사 지눌(知訥, 1158-1210)의 저술을 영역한 것이 계기가 되었다. 그는 지눌의 저술을 통해서 한국불교의 선불교가 오랜 전통과 역사를 지닌 것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것에 매료되었다. 그 이후, 1979년 미국으로 돌아가서 38년 동안 한국불교학 연구와 북미 불교학계에 한국불교학을 정착시키기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오고 있

* 이 논문의 제재료는 2013년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간접비 재원에서 지원 받은 것임.

** 동명대학교 조교수, 불교학, kimsuah@hotmail.com

다.

본 논문은 지난 38년 동안, 한국불교와 관련된 버스웰의 활동과 학문적 업적을 북미 한국불교학의 개척자라는 입장에서 세 단계로 정리하여 소개하려는데 목적이 있다. 첫째는 선불교 수행자에서 한국불교학을 전공하는 연구자가 되기까지의 과정, 둘째는 북미 불교학계에 한국불교학이 정착하는 과정에서 버스웰의 역할과 업적을 조명하고, 셋째는 버스웰의 한국불교와 관련된 중요한 업적들을 시대별로 분석하여 간략히 소개할 것이다. 리처드 맥브라이드(Richard D. McBride, II)¹⁾는 북미주에서 한국불교학 연구를 시대별로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북미에서의 한국불교학 연구의 시작을 1960년대로 보고, 1970년대부터 1990년대는 한국불교의 유명한 승려들에 대한 연구가 집중되어 있고, 1990년대 이래 동아시아에서의 한국불교, 한국불교의 수행, 현대적 관점에서 한국불교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고 분석한다. 맥브라이드의 분석에 따르면, 버스웰의 한국불교학 연구는 1980년대에서 현대에 이르는 시기에 해당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맥브라이드의 시대구분에 따라서 버스웰의 학문적 업적을 세 단계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는 1990년대 이전의 연구 경향으로 지눌과 원효에 관한 연구이고, 둘째는 1990년대 이후의 한국불교의 수행 전통에 관한 연구이고, 셋째는 버스웰이 한국불교학을 바라보는 관점으로 동아시아 불교 전통의 맥락 속에서의 한국불교 연구이다. 특히 한국불교 연구를 동아시아 불교 전통의 맥락 속에서 파악해야 한다는 그의 시각은 한국불교 속에서만 한국불교를 바라보던 기존 관점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 넣었을 뿐만 아니라, 한국 연구자들에게는 새로운 연구관점을 제공하였다. '흐름과 반흐름'이라는 상호 역동적인 관계로 동아시아 불교문화권을 바라보는 그의 시각은 불교가 가진 상호문화주의적 경향을 적절하게 드러내 주고 있다. 그러므로 한국불교학과 관련된 버스웰의 삶과 업적을 고찰하는 이 논문은 버스웰이 한국불교학에 바친 그의 삶과 학문적 업적을 통해 미래 한국불교학 연구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게 될 것이다.

1) Richard D. McBride, II, "The Study of Korean Buddhism in North America: Retrospective and Recent Trends", *The Review of Korean Studies*, vol. 9-1, 2006, pp. 27-48.

II. 본론

1. 로버트 버스웰과 한국 불교

a) 현장연구로서의 한국불교

버스웰은 1971년 9월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산타바바라 캠퍼스(University of California at Santa Barbara)에 입학하여 동양학(Asian Studies)에 관심을 가졌다. 1972년 1학년을 마친 그는 아시아지역으로 현장연구를 떠나기로 결심하였다. 미국에서의 불교학은 유럽의 전통적 문헌학 연구방법을 계승하였지만, 문헌 즉 텍스트(Text) 중심인 문헌학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지역학 연구(Area Studies)로 그 영역을 확대하였다. 지역학 연구는 문헌 속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지역의 생동감 넘치는 문화와 전통에 대한 경험이 중요하다는 인식에서 현장연구(Fieldwork)를 장려한다.

그는 1972년부터 1979년까지 7년간 아시아 지역에서 아시아의 종교와 문화를 경험하게 되었다. 첫 현장연구지인 태국에서 그는 남방불교 즉 테라바다(Theravāda) 불교의 전통에 속한 탐마유트(Thammayut) 종단의 승려로 1973년 까지 약 1년 간 남방불교의 수행인 위파사나와 종교 문화를 경험하였다. 그러나 태국의 열대성 기후에 잘 적응하지 못하여 태국을 떠나 홍콩 란다우 섬에 있는 암자로 거처를 옮기게 되었고, 1974년까지 중국불교의 화엄불교와 선불교를 배웠다.

태국과 홍콩에서 수행하던 중 두 명의 한국 승려와의 만남과 다른 외국인 수행자들의 한국 불교 체험기를 듣고, 한국불교의 선불교 전통에 호기심을 느끼고 한국행을 결심하게 되었다. 1974년 전라남도 순천에 있는 송광사에서 당시 외국인을 위해 선 수행을 지도하던 구산을 만나게 되었다. 구산은 그에게 혜명(慧明)이라는 법명을 지어 주었고, 그는 1978년까지 5년 동안 그곳에서 선승(禪僧)으로 한국불교의 선불교 전통에 따라 수행했다.

버스웰은 7년 동안에 걸친 아시아지역에서의 현장연구가 본인의 학문연구에 끼친 영향을 다음과 같이 회고한다.

현재는 대학 강당에서 한국불교와 중국불교를 가르치고 연구하는 학자이지만, 한때 수년 동안 선승의 삶을 산 경험이 있는 내 생각으로는 불교 교학에 대한 연구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넘어 교학적 가르침이 실제로 현장에서 어떻게 수행되고 있는가 하는 문제를 연구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승려들의 설법과 문현만으로 한국불교의 특징을 파악하는

것보다는 실제로 그들이 무엇을 실천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²⁾

이 글은 불교연구에 있어서 문헌학적 연구방법과 더불어 지역학에 바탕을 둔 현장연구가 왜 중요한가를 간결하고 명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다. 2,600년 동안 불교는 아시아 전 지역에서 종교, 철학, 예술과 문학의 발전에 영향을 끼쳤고, 현재까지도 위대한 유산들이 계승발전 되어 오고 있다. 현장연구는 바로 이러한 역사적 산물들이 어떻게 살아 숨 쉬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현대에 계승되어 현대인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있는가에 주목하는 연구방법이다. 따라서 현장연구는 역사 속에서만 찬란히 빛나는 불교를 탐구할 뿐만 아니라, 현재에 진행되고 있는 불교의 진행 현장을 탐구 대상으로 한다. 그가 불교연구에 있어서 현장연구를 강조하는 것은 아시아 지역의 불교학자들이 지나치게 문헌학적 접근방법에 따른 불교연구에 치중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의 지적처럼, 불교연구가 교학에 대한 연구를 넘어서 그것이 어떻게 사람들의 삶 속에 적용되어 왔는지를 연구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불교학 연구에 현장연구를 적용시킬 경우, 불교학 연구가 현재 교학중심에서 벗어나서 종교, 철학, 사상, 역사, 인류학, 예술과 문화 전반에 걸쳐 폭넓은 학문분야로 재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될 것이다.

미국사회에서 알고 있는 선불교는 대부분 일본불교의 D. T. 스즈끼(Suzuki)에 의해 전래되었다. 스즈끼에 의해 전해진 선승들의 이미지는 일상생활과는 괴리가 있는 우상파괴주의, 급진적인 대화법과 수사법, 종교의식과 제도에 대한 도전자로 묘사되고 있다. 그러나 버스웰은 송광사에서 일상생활 속에서 수행하는 선 수행자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다. 따라서 그는 스즈끼에 의해 알고 있던 탈세속적인 기준의 선수행자의 이미지와 한국 불교의 일상생활 속에서 수행하는 수행자의 모습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점이 어디에서 비롯되는지를 알기 위해 수행승이 되기로 결심하였다. 그는 송광사에서 5년 동안 선수행자로서의 삶을 *The Zen Monastic Experience*(『파란 눈 스님의 한국선 수행기』, 이하 『한국선 수행기』)³⁾에 고스란히 담아내고 있다. 이 책에 그는 수행승의 삶을 선택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한국에서 일상적인 삶에 익숙해지면서, 나는 왜 내가 이런 형태의 수행을 해야 하는가

2) Robert Buswell, "Korean Buddhist Thought in East Asian Context," 《불교학보》 제60집, 2011, p. 219.

3) Robert Buswell, *The Zen Monastic Experience: Buddhist Practice in Contemporary Korea*.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2. 『파란 눈 스님의 한국선 수행기』, 김종명 옮김, 예문서원, 1999.

를 분명히 납득하고 싶었다. 이것을 위해서는 절에 소속된 관찰자가 되는 것 이외에 다른 방법은 없었다. 한국에 간 나의 일차적 목적이 한국의 사찰 제도와 사찰 생활을 배우기 위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것들에 대한 매력을 떨쳐 버릴 수는 없었다.⁴⁾

그가 언급한 ‘절에 소속된 관찰자’란 프랫(Mary Louise Pratt)이 주장하는 참석자이면서 관찰자의 입장이다.⁵⁾ 관찰자적인 입장에서만 한국불교를 경험할 경우, 그는 “불교 수행을 객관주의자적 관점에서 정당화시키게 되면서 사찰 생활의 경험을 경시하게 될 뿐만 아니라, 동양의 그런 전통과는 아주 거리가 먼, 서양의 세속적인 문화의 틀에 끼워 맞추는 잘못을 범하게 된다.”⁶⁾고 하여 주관적 관점이 배제된 객관의 오류를 지적하고 있다. 맥브라이드는 버스웰의 ‘참석자이면서 관찰자의 입장’을 ‘내부에서 바라보는 외부인의 관점(From the standpoint of an inside outsider)’이라고 재해석하고, 버스웰의 『한국선 수행기』는 이러한 관점에서 한국불교연구에 접근한 첫 번째 저술⁷⁾이라고 극찬한다.

버스웰이 견지하는 절에 소속된 관찰자는 초기불교에서의 중도(中道)의 입장과 흡사하다. 봇다는 양 극단을 피해 사물을 바라보도록 가르치는데, 이것이 중도이다. 버스웰이 선택한 절에 소속된 관찰자라는 의미는 한국불교를 주관과 객관을 동시에 포함하면서도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고, 주관과 객관이 서로 견제할 수 있는 균형을 유지하며 관찰하고자 하는 자세인데, 이것은 양 극단을 피해 사물을 바라보려는 중도와 동일한 의미이다. 이러한 중도적 시각으로 한국불교에서 5년 동안의 수행 생활은 38년이라는 그의 한국불교 연구를 위한 틀을 형성하도록 했다. 그것은 그가 한국불교를 한반도에서의 불교만이 아니라, 동아시아 불교 전통의 맥락에서 바라보아야 한다는 연구관점을 확립하도록 이끈 원동력이 되었다.

b) 한국불교연구자, 로버트 버스웰

버스웰의 한국불교학 연구는 송광사에서 수행하는 동안 구산이 그에게 보조국사 지눌(知訥, 1158~1210)의 지술을 영역하도록 권유한 것이 계기가 되었다. 그는 수행하는 틈틈이 지눌의 저술을 영역하게 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한국 선불교 전통에 매료되었고, 미국으로 돌아가서 한국불교학을 전공하게 되었다. 이 기간

4) 같은 책, p. 36.

5) 같은 책, p. 31.

6) 같은 책, p. 30.

7) *op. cit.*, p. 37.

작업한 지눌의 저서들은 1983년 *The Korean Approach to Zen: The Collected Works of Chinul*(『한국의 선불교: 지눌전서』, 이하 『지눌전서』)⁸⁾로 출간되어 서구 사회에 한국불교의 선불교 전통을 알리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1979년 버스웰은 미국으로 귀국하여 당시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버클리 캠퍼스(University of California at Berkeley)에 속해 있는 루이스 랭카스터(Lewis R. Lancaster, 1932~)교수를 만났다. 그리고 그의 도움으로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산타바바라 캠퍼스에 재입학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한국 선불교 전통을 학문적으로 연구하여 1981년에는 *Syncretic Trends in Chinul's Thought: An Annotated Translation of the Wondon Songbul'on*(『지눌의 통불교사상: 원돈성불론[圓頓成佛論]의 주석적 번역』)이라는 논문을 제출하고 대학을 졸업하였다. 이 『원돈성불론』은 지눌의 저술로 수행의 과정을 자세하게 설명한 것인데, 중국불교의 화엄종 이통현(李通玄, 635-730 또는 646-740)이 저술한 『신화엄경론』에 관한 지눌의 독자적 해석이다.

졸업 후, 버스웰은 랭카스터 교수의 지도를 받기 위해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버클리 캠퍼스 석사 과정에 입학하였고, 1985년에는 한국 불교 연구로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그의 박사 학위 논문은 *The Korean Origin of the Vajrasamadhi-Sutra: A Case Study in Determining the Dating, Provenance, and Authorship of a Buddhist Apocryphal Scripture*(『금강삼매경(金剛三昧經)의 한국 기원: 불교 위경(僞經)의 저술 연대와 장소와 저자에 관한 사례 연구』)이었다. 이 논문에서 그는 동아시아 선불교 전통에서 대단히 중요한 위경인 『금강 삼매경』을 연구하였다. 위경이란 인도에서 편찬되어 전래된 경전이 아니라, 인도 이외 중앙아시아 혹은 동아시아에서 지역의 교회 상황의 필요성과 수준에 맞게 편찬된 경전들을 칭한다. 위경에 관한 연구는 1970년대와 1980년대 버클리 대학에서 랭카스터 교수와 그의 학생들의 관심분야였던 '동아시아에서의 위경의 중요성'에 대한 연구 경향을 반영한 것이었다.⁹⁾ 이 논문에서 그는 초기 중국선종사 혁성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 『금강삼매경』이 삼국시대 한반도에서 편찬된 위경이라고 주장한다. 그는 이것이 중국에서 편찬되었다는 기존 학설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한국불교 승려들이 동아시아 불교전통을 확립하는데 얼마나 지대한 영향을 끼쳤는지에 관한 다양한 증거를 제공하기에 이른다. 이러한 그의 주장들은 한국불교가 전혀 알려지지 않은 서구학계 특히 북미불교학계에 커다란 반향을 일으

8) Robert Buswell, *The Korean Approach to Zen: The Collected Works of Chinul*, 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Press, 1983.

9) *op. cit.*, p. 33.

켰다.

1986년 버스웰은 그의 논문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로스 앤젤레스 캠퍼스(University of California at Los Angeles, 이하 UCLA)의 조교 수로 임명되었다. 그러나 한국불교를 전공한 그가 받은 교수직은 한국불교 전공자가 아니라 중국불교 전공자를 위한 자리였다. 그것은 그가 중국불교 전공자이기도 했지만, 당시 북미 대학교 어디에도 한국불교를 가르칠 자리는 없었기 때문이었다.

교수가 된 이후, 지난 30년 동안 그는 학자이자 행정가로서 탁월한 능력을 인정받아 세상 사람들로부터 선망의 대상이 되었다. 지난 30년 동안, 그가 일구어낸 학문적이고 행정적인 업적 가운데 최고의 업적이자 가장 중요한 업적은 서구학계에 한국불교학을 정착시킨 것이었다. 그도 자신에게 주어진 중요한 소임이 서구학계에 한국불교를 소개하는 것이고, 그들이 한국불교를 높이 평가하도록 하는 일로 여겨왔다고 토로하고 있다.¹⁰⁾

c) 상생의 만남, 버스웰과 한국불교

버스웰과 한국불교와의 만남은 상생(相生)의 만남이다. 그는 구산과의 만남을 “내 부모님을 제외하고는 어느 누구도 구산 스님만큼 내 삶에 깊은 영향을 끼친 분은 없었다.”고 회고하고 있다.¹¹⁾ 그의 말처럼 그는 구산을 통해 한국불교의 선불교 전통과 만났고, 선불교와 함께 학자로서의 길을 걷게 되었다. UCLA에서의 그의 일상생활을 전해 주는 다음의 기사에서도 한국불교가 그의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쳤는지를 알 수 있다.

그는 본인이 한국불교의 수도원 출신임을 부정하지 않는다. 그의 집에 선정원(禪庭園)이 있을 뿐 아니라, 대학 연구실에는 참선 수행을 위한 방석이 한 구석에 놓여 있다. 그리고 매일 오후가 되면 참선을 위해 10분~15분 정도 자신의 연구실 문을 잠근다. 학생들이 연구실을 방문하면 의자보다는 마루 매트 위에 앉기를 권하곤 한다. 학회에서도 그는 의자 위에 가부좌를 하고 앉는다. 그의 동료이자 아시아언어문화학과 팀 탄게리니(Tim Tanquerlini)교수는 “내가 지난 몇 년 동안 보아 온 사람 중에 편안하게 의자 위에 가부좌를 하고 앉는 유일한 사람”이라고 버스웰 교수에 대하여 평가하고 있다.¹²⁾

10) R. Buswell, “Korean Buddhist Thought in East Asian Context,” p. 219.

11) 김종명, 같은 책, p. 14.

12) Meg Sullivan, “Building a Case for Buddhist Studies at UCLA,” *UCLA College Report* volume 1, Fall 2003–Winter 2004.

버스웰의 UCLA에서의 일상은 선수행의 연장선이며, 그에게 한국불교는 연구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삶 그 자체이기도 하다. 그의 제자이자 아리조나 주립대학교 (Arizona State University) 종교학과(Department of Religious Studies) 교수인 박포리는 그와 한국 불교와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버스웰 교수가 한국불교를 통해 선 수행과 학문적 성과를 이루었다면, 한국불교는 그로 인해 세계 속의 불교가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¹³⁾

지난 30년 동안, 버스웰은 한국불교와 함께 걸어왔다. 그 결과, 그는 서구학계에서 한국불교학의 대변자이자 상징이 되었고, 한국불교는 그로 인하여 서구 학계에 알려지기 시작했다. 또한 그로 인하여 한국불교학은 중국불교학과 일본불교학과 나란히 동아시아학계에서 독립적인 학문 영역으로 인정받기에 이른다.

그러나 그가 북미 불교학계에 한국불교학을 정착시키기까지의 과정은 그다지 평탄하지만은 않은 길이었다. 그가 학문에 입문하기 이전의 서구에서의 한국불교학은 불모지나 다름없었다. 서구 학계에서 한국불교 연구는 중국불교와 일본불교 연구에 비하여 늦게 출발하게 되었다. 루이스 랭카스터는 그러한 상황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19세기 20세기에 유럽, 일본, 중국, 동남아시아, 북미 학자들의 상호 작용에 의해 불교의 학문적 연구가 일어났으나, 불행히도 한국불교에 대한 연구가 지체되어 동아시아 불교 전통을 연구하는데 있어서 한국불교 전통의 중요성이 약화되었다. 이것이 서구에서의 한국불교 연구 부재의 이유이다.¹⁴⁾

1980년대 북미학계에서 중국학과 일본학은 절정을 이루고 있는 반면, 한국학은 걸음마 수준이었다. 다음 장에서 자세히 다루겠지만, 맥브라이드는 “1960년대에 시작된 북미에서의 한국불교학 연구는 1990년대까지도 미비한 수준이었다. 1990년대 이후 랭카스터 교수가 한국불교학 연구에 초석을 놓았고, 그의 제자인 버스웰 교수에 의해 정립되었다.”고 분석하고 있다.¹⁵⁾

13) 박포리, 「세계의 불교석학-(26) 미국 UCLA대 로버트 버스웰 교수」, 『법보신문』 756 호, 2004년 5월 31일.

14) L. Lancaster, “The Role and Significance of Korea Son in the Study of East Asian Buddhism,” *Chung-Haw Buddhist Journal* 13-2, 2000, p. 433.

15) *op. cit.*, p. 27.

버스웰은 UCLA에 조교수로 취임했을 당시 불모지나 다름없는 한국불교연구에 관한 상황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중국과 일본에 대한 연구가 주도적인 서구의 동아시아 연구자들에게는 한국의 중요성이 분명하게 인식되어 있지 않다. 내가 1980년대 중반에 대학원을 마쳤을 때, 미국학계에서는 한국학을 가르칠 어떠한 자리도 사실상 없었다. 나는 운이 좋아 중국불교 교수직에 임용되었고, 내 담당 과목에 한국을 조금씩 추가할 수 있을 정도였다. 내가 처음 임용되었을 때, 우리 학과는 미국 최대의 동아시아 학과였다. 그런데 우리 학과의 커리큘럼에 한국어를 추가해 달라는 학생들과 교수들의 요청에 대하여 우리 학과 학과장은 “한국어가 필요한 사람들은 이 학과 말고 다른 조그마한 대학에서 한국어를 배우면 되지 않나요?”라고 말하면서 거부했던 일이 생각난다. 최근 몇 년까지도 나는 여전히, 중국학 전문가들이 한국학을 커리큘럼에 추가하는 것이 별로 의미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한국학이 쓰촨학(四川學)이나 광동학(廣東學) 등의 지역 전문가를 채용하는 것보다 더 의미가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¹⁶⁾

불모지나 다름없는 한국학과 한국불교학의 상황을 바꾸어 놓은 장본인이 바로 버스웰이었다. 지난 30년 동안 그의 지속적인 노력은 그의 첫 부임지인 UCLA와 북미학계에 집중되었다. 첫째, UCLA에서 한국학과 한국불교학의 가치를 인정받는 것에 집중했다. 그는 1987년 한국 고전 문학 전공자인 피터 리(Peter H. Lee) 교수를 초빙했고, 1989년에는 한국 중세사 전공자 존 던컨(John B. Duncan) 박사를 초빙하여 UCLA에 한국학을 정립했다. 그리고 1993년에는 한국학 연구소(Center for Korean Studies)를 설립하여 미주에서 가장 대표적인 한국학 연구소로 성장시켰다.

2000년에 그의 한국학 정립을 위한 고군분투의 결실이 UCLA 대학교 당국으로부터 인정받는 사건이 생겼다. 그 해 그의 모교인 버클리 캠퍼스에서 한국학 연구소는 물론이고 불교학 연구소까지 설립해 주겠다는 최상의 조건으로 그를 스카우트하려 했는데, 이를 알게 된 UCLA 대학교 당국이 버클리 캠퍼스보다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게 되었다. 그는 UCLA 교수직을 선택했다.¹⁷⁾ 그 결과, 2000년에 불교학 연구소(Center for Buddhist Studies)가 설립되었고, 한국학 연구소는 물론이고 불교학 연구소도 외부 기금에 의존하지 않고 운영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는 설립 이래 지금까지 불교학 연구소 소장직을 맡고 있다.

둘째, 북미학계에 한국불교학의 정착을 위한 노력이었다. 1980년대 북미학계는 중국학과 일본학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고, 한국학이나 한국불교학의 존재는 미미

16) R. Buswell, "Korean Buddhist Thought in East Asian Context," p. 219.

17) 김종명, 「만해대상(포교부문)수상자 로버트 버스웰」, 『유심』 33호, 2008, pp. 114-118.

하였다. 그는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회고하고 있다. “그 동안 내가 참석한 학술대회의 발표자들 가운데 내가 유일한 한국불교 전문가였다. 그래서 나는 항상 마지막 발표자였던 것으로 기억한다.”¹⁸⁾ 이렇게 미미한 한국불교의 존재를 북미불교학계에 심기 위하여 그는 북미학계의 중국학과 일본학 전문가들에게 한국 자료의 내재적, 외재적 가치를 꾸준히 알려 주는 방식으로 그들이 한국학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도록 만들었다. 그가 언급한 한국학의 내재적 가치란 중국이나 일본의 전통 자료만큼이나 가치 있는 한국 전통 자료의 가치를 말하고, 외재적 가치란 중국이나 일본 전통에 비추어 한국 특히 한국불교 전통의 가치를 말한다고 부연설명하고 있다.¹⁹⁾

이러한 지난 30년간의 버스웰의 노력이 북미불교학계에서 한국불교학의 위상을 바꾸어 놓았다. 무엇보다 한국불교학을 전공하는 젊은 학자들이 늘어났다. 젊은 학자의 증가는 북미학계에서 한국불교학이 하나의 학문 영역으로 자리 잡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북미학계의 변화된 분위기를 증명하듯이, 그는 2008년부터 2009년까지 북미 지역에서 아시아 학계로서는 최대 규모인 The Association for Asian Studies(이하 AAS) 학회의 회장직을 역임하였으며, 이는 한국불교학 전공자로서는 유일한 일이었다. 이것은 그가 다양한 학회에서의 활동을 통해 한국학과 한국불교학을 북미학계에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한 결실이다. 또한 그가 곧 한국불교학이라는 등식에서 본다면, 그의 AAS의 회장직은 한국불교학이 북미불교학계에 정착되는 순간이라고도 볼 수 있겠다.

버스웰의 지난 30년간의 노력은 북미불교학계에서 여러 가지 불리한 조건에 놓여 있었던 한국불교학 연구를 중국 및 일본 불교와 어깨를 나란히 하도록 만들어 놓았다. 만약 한국불교가 그를 만나지 못했다면, 북미불교학계에서 한국불교는 아직도 쓰촨학이나 광동학과 같이 작은 지역의 불교 전통으로 전락하여 하나의 학문분야로 정착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한국 불교는 다행히도 버스웰을 만나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21세기 한국불교의 세계화를 위한 발판을 구축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발전은 한국불교와 버스웰의 상생의 만남의 결과이고, 이 상생의 만남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2. 북미불교학의 역사와 북미 한국불교학의 연구 경향

한국불교학이 서구학계에 하나의 학문영역으로 정착되기까지는 버스웰의 부단

18) R. Buswell, “Korean Buddhist Thought in East Asian Context,” p. 219.

19) 같은 책, 219쪽.

한 노력과 더불어 북미불교학계에 있어서의 동아시아 선불교 전통에 관한 연구경향의 변화도 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 서 있었던 학자 또한 버스웰이었다. 여기서는 200년 북미불교학계의 역사 속에서 한국불교학이 어떻게 정착하게 되었는지를 고찰할 것이다. 그러한 과정에서 북미 불교학계에서의 버스웰의 학문적 위치도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될 것이다.

미국에서의 불교학의 시작은 19세기 중엽 유럽의 문현학 전통을 받아들이면서부터였다. 1960년대에 미국에서 불교가 가장 빠르고 폭넓게 전파되기 시작되었고, 1961년 위스콘신 주립대학에서 불교학 강의가 시작되었다. 이것에 영향을 받아 계속하여 뉴욕의 콜럼비아 대학과 버클리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불교학 과정이 생겼다. 이 시기에 미국에 한국불교도 등장하는데, 1964년 서경보에 의한 『초당집(草堂集)』이 그 시초였다. 박진영은²⁰⁾ 1964년 이래 미국 대학교에서 한국 불교에 대한 관심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미국 대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대표적인 불교 입문서들을 통해 고찰했다.

첫째는 리처드 로빈슨(Richard Robinson)과 윌라드 존슨(Willard L. Johnson)이 쓴 *The Buddhist Religion: A Historical Introduction*(『불교: 역사적 개관』)²¹⁾이다. 이 책은 미국 대학교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불교 입문서로 1970년 출간된 이래 계속적으로 증보와 개정판을 내고 있다. 1970년대 출간된 초판에서는 두 페이지 만에 걸쳐 한국불교를 소개한다. 즉 4세기에 중국 승려 순도에 의해 전파된 이래 1960년대까지의 한국불교사를 간략히 개관하고 있다. 그런데 1997년에 출간된 제4판에서는 한국불교를 16페이지에 걸쳐 소개했다. 초판에서는 한국불교사만 간략하게 소개한 반면, 제4판에서는 한국불교사와 더불어 대각국사 의천, 보조국사 지눌, 태고 보우 등 한국불교의 중요한 승려들에 대한 정보, 현대의 다양한 종파와 불경의 한글화 작업, 한국불교의 선원 생활까지 자세히 소개한다.

둘째는 도날드 미첼(Donald W. Mitchell)의 *Buddhism: Introducing The Buddhist Experience*(『불교적 경험에 대한 입문』)²²⁾이다. 이 책은 전체 10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가운데 한국불교에 한 장을 할애하고 있다. 박진영은 미국의 불교 입문서에서 한국불교에 대한 소개가 점점 증가하는 것은 이전보다 미국

20) 박진영, 「미국사회에서 한국 불교에 관한 관심이-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 『미주현대불교』, 2004.

21) Richard Robinson & Willard L. Johnson, *The Buddhist Religion: A Historical Introduction*, Wadsworth Pub. Co., U.S.A., 1970 & 1997.

22) Donald W. Mitchell, *Buddhism: Introducing The Buddhist Experienc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U.S.A., 2002.

인들이 한국불교에 관심을 많이 가진다는 증거라고 한다. 그러나 그의 지적한 것처럼, 미국에서의 한국불교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는 있다고는 하지만, 다른 지역의 불교, 예를 들면, 중국과 일본과 티벳과 같은 지역의 불교에 대한 관심의 증가에 비하면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낮다.

1960년대 이후, 미국에서 불교학이 계속적으로 발전해 오고 있는 지역은 북미주 지역이다. 북미주는 현재 세계불교학계를 이끌어 가는 지역이기도 하다. 그런데 현재까지 북미주 지역에서 가장 활발히 연구되는 불교학은 지역적으로는 동아시아이며, 분야로는 선불교이다. 김종명²³⁾에 따르면, 북미주에서 선불교에 관련된 연구 논문은 1962년에 처음 발표되었으며, 1970년대에는 약간의 증가세를 보이다가 1980년대와 1990년대에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들을 분석해 보면, 선불교와 관련된 응용부문의 논문은 일본 선불교와 관련된 것이 많고, 선불교 자체에 대한 연구는 중국불교와 관련된 것이 대부분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불교의 선불교가 각광을 받게 되는 계기는 20세기 돈황 석굴의 17번굴 막고굴에서 발견된 선불교의 문헌들에 관한 연구에서 비롯되었다. 1900년 초반에 중앙아시아에 위치한 돈황의 외곽지역에 자리 잡은 석굴에서 유럽의 탐험가들에 의해 5만여 문헌들이 발견되었다. 이들 5만여 문헌들 가운데 초기 중국선종사에 관련된 문헌들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었다. 이들 문헌들을 연구한 불교학자들은 기존 연구에서 밝혀진 중국선종사가 지극히 단순화되었다는 사실에 눈을 떴다. 즉 불교학자들은 중국 초기 선불교의 형성과 전개 과정이 기존의 연구결과보다 매우 복잡한 운동이었음을 깨닫게 되었다. 따라서 새로운 국면에 접어 든 중국불교의 초기 선종사의 연구를 위해 불교학자들은 다양한 방면의 문헌들을 연구하기 시작했고, 중국 주변 국가에도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

바로 이 무렵인 1983년에 버스웰은 보조국사 지눌의 저술들을 영역한 『지눌 전서』를 출간하였다. 이 책은 지눌의 저술 가운데 『화엄론절요(華嚴論節要)』만을 제외하고 모두 영역한 것으로 서문에 한국불교의 선불교 전통에 대한 길고 상세한 소개의 글을 실고, 본문의 영역(英譯)에는 지눌이 인용한 문헌들의 출처를 모두 밝혔다. 버스웰은 이 한 권의 책으로 한국불교의 선불교 전통을 세계학계에 각인시켰다.

계속하여 1992년에 버스웰은 『한국선 수행기』를 출간하였다. 앞장에서 자세히 언급하였지만, 이 책은 스즈끼에 의해 소개된 선불교에 대한 서양의 왜곡된 인식을 바로잡기 위하여 선불교가 일상생활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소개

23) 김종명, 「북미주학계와 선불교」, 《미국학》 23집, 2000, pp. 173-178.

했다. 그는 송광사에서 경험한 수행 생활을 바탕으로, 한국 승려의 생활과 선 수행의 실제 모습을 자세하게 묘사하여, 살아 숨 쉬는 한국불교의 선불교 전통을 생생하게 묘사했다. 때마침 새로운 자료를 찾던 불교학자들에게 버스웰은 연속적으로 두 권의 한국불교관련 책들을 제공한 것이었다. 이러한 결과, 북미 불교학계의 불교학자들이 한국불교의 중요성과 가치를 깨닫게 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이러한 의미에서 북미학계에 한국불교학을 데뷔시킨 학자는 바로 버스웰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버스웰의 역할을 맥브라이드는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1970년대 아래 북미지역에서의 한국불교학 연구는 계속적으로 발전해 오고 있지만 여전히 초보적인 단계에 머물고 있다. 1960년대 말부터 1970년대까지의 한국불교학은 문헌이나 자료를 평가하는 수준이었다. 그리고 197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는 한국불교에서 가장 유능한 승려인 원효와 지눌에 관한 연구가 전부였다. 그러나 지난 25년 동안 한국불교학의 연구는 세 가지 관점에서 진행되어 오고 있다. 첫째는 동아시아의 문화와 사상의 전통 속에서 한국불교를 평가하는 것, 둘째는 한국불교의 수행과 의례에 대한 검토, 셋째는 현대의 관점에서 한국불교를 관찰하는 것이다. 루이스 랭카스터는 서구사람들이 쉽게 접근하도록 한국과 일본의 학문적 업적을 만들어 내는 다양한 프로젝트를 통해 한국불교학의 초석을 다졌다. 또한 로버트 버스웰은 선불교와 관련된 저술들을 통하여, 동아시아 불교의 전통을 확립하는 데 있어서의 한국불교의 중요성을 분명히 했다.²⁴⁾

북미지역에서 한국불교학을 다양한 관점으로 연구하도록 이끈 학자들은 랭카스터와 그의 제자 버스웰이다. 김종명²⁵⁾도 이것에 동의하는 학자 가운데 한 명이다. 이들이 한국불교학을 다양한 관점으로 연구하도록 지평을 열 수 있었던 것은 한국불교학을 동아시아불교의 맥락 속에서 고찰해야 한다는 관점이 동아시아불교 국가들과의 연결고리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들은 한국불교학 커리큘럼에 반드시 다른 불교전통을 이수하도록 규정을 만들어서 한국불교학 전공자들이 다른 불교전통과 연계지어 연구하는 환경을 조성했다.

이들에 의해 반석위에 올려 진 한국불교학이 서구학계와 북미학계에서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한국불교학을 전공하는 연구자의 증가와 영문으로 편찬된 한국불교 관련 서적의 증가가 필요하다. 박진영²⁶⁾은 H-Buddhism에 소속된 불교학자들을 분석하여 중요한 데이터를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다. 이

24) *op. cit.*, p. 37.

25) 김종명, 「북미주학계의 선불교」, p. 2.

26) 박진영, 인터넷에서 다운로드한 글로 페이지를 정확히 확인할 수 없음.

H-Buddhism은 미국의 불교학자들이 정보를 교환하는 이메일 네트워크로서 2004년 9월 기준으로 여기에 770여명의 불교학자가 가입되어 있다고 한다. 770명의 불교학자를 분석해 보면, 한국불교를 전공하는 학자는 30여명이다. 그런데 이 수치는 인도 불교 전공은 190여명, 중국불교 전공은 150여명, 일본불교와 티베트 불교는 각각 100명인 다른 나라 불교학자의 수치와 비교해 보면, 한국불교학의 연구자가 수적으로 열세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또한 쇠 로덴²⁷⁾은 아마존을 검색하여 우리에게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다. 2004년 6월 인터넷 최고의 출판물 시장인 아마존(www.amazon.com)에 검색되는 한국불교 관련 서적은 약 4,435권이라고 한다. 이 수치는 10,373권의 중국불교와 9,227권의 일본불교에 비하면 반에 밀도는 정도이다. 그러나 실제로 아마존에 뜨는 불교 서적 50권을 분석해 보면 50권 가운데 대부분이 티베트인이나 외국인 작가가 쓴 티베트불교 관련 서적들이고, 한국불교 관련 서적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이러한 부정적인 수치에도 불구하고, 버스웰은 북미학계에서의 미래의 한국불교학을 낙관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1980년대에는 버스웰 자신이 북미불교학계에서 유일한 한국불교 전공자였지만, 30여년이 지나는 동안 한국불교학을 전공하는 젊은 연구자가 꾸준히 증가해 오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래의 한국불교학을 버스웰의 낙관론에만 맡겨 둘 수는 없는 실정이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다른 지역 불교의 연구자와 불교 서적의 비교 수치를 본다면, 북미학계에서 한국불교학 연구가 미래에 계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단언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북미불교학계와 서구사회에 한국학과 한국불교학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젊은 연구자의 양성과 더불어 영문 서적의 편찬에 대한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

3. 로버트 버스웰의 한국불교학 연구 특징

앞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난 30년 동안, 버스웰은 북미불교학계에서 한국불교 연구를 실질적으로 이끈 학자이다. 그는 15권의 저술과 40여 편의 인도불교, 중국불교, 한국불교에 대한 논문들을 집필하였다. 1980년대 보조국사 지눌의 연구를 시작으로 원효의 연구로 이어진 그의 연구는 보조와 원효 연구의 전문가로 자리매김한다. 그러나 그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문헌학적인 연구 방법을 넘어

27) 쇠 로덴, 세계를 향한 한국 불교(학)의 화두! -한국 불교(학) 관련 저술이 영문으로 번역되지 못하는 이유- 『불교와 문화』, 7,8월호, 2004, pp. 37-53.

서 종교학, 역사학, 사회학적인 연구방법을 한국불교 연구에 도입하였다. 이러한 그의 왕성하고 다양한 연구는 결국 한국불교 연구의 다양화로 이어지게 되었다.

여기서는 그의 방대하고 다양한 연구 업적 가운데 한국불교 관련 연구, 특히 북미불교학계에 한국불교 전통의 중요성과 가치를 높여 준 저술과 한국불교 연구를 변화시킨 논문에 한정하여 세 분류의 연구경향으로 정리할 것이다. 첫째는 지눌과 원효 연구, 둘째는 한국불교의 수행에 관한 연구, 셋째는 동아시아 불교 전통의 맥락 속에서 한국불교 바라보기이다. 이 가운데 동아시아 불교 맥락 속에서 한국불교 바라보기는 그가 한국불교 연구에서 견지하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연구 관점이다. 이 관점의 연장선으로 그는 「상상의 한국 불교」에서 민족적 개념의 한국불교는 허구라는 견해를 밝히고 있는데, 이 점을 중심으로 고찰하여 버스웰의 한국불교학 연구의 장점을 부각시키고자 한다.

a) 지눌과 원효연구

1980년대에서 1990년대까지 미국에서의 한국불교학 연구는 지눌과 원효의 연구로 특징지을 수 있다. 버스웰의 지눌과 원효의 연구는 이러한 연구경향을 이끄는 선두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지눌연구는 한국 불교의 선 전통의 역사와 사상을 서구학계에 소개하고, 그 중요성과 가치를 인정받았다. 또한 원효연구는 위경『금강삼매경』의 한반도 편찬과 원효의 『금강삼매경론』의 중요성을 부각시킴으로서 한국불교가 지역의 불교가 아니라, 동아시아불교 전통을 확립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한 주역이라는 사실을 북미학계에 알렸다. 따라서 지눌과 원효의 연구는 버스웰을 촉망받는 학자의 반열에 올림과 동시에 북미학계에서 한국불교학이 하나의 학문영역으로 자리 잡게 한 계기를 마련했다.

1983년에 출간한 『지눌전서』는 지눌의 저술 가운데 『화엄론절요(華嚴論節要)』만 제외하고, 『계초심학입문(誠初心學入門)』, 『수심결(修心訣)』, 『진심직설(眞心直說)』, 『염불요문(念佛要門)』, 『원돈성불론(圓頓成佛論)』, 『간화결의론(看話決疑論)』, 『법집병행록절요병입사기(法集別行錄節要竝入私記)』 등을 차례로 영역하고 있다. 그는 1980년대 이 책으로 북미불교학계에서 가장 관심사였던 선불교 담론에 참가하였다. 지눌의 생애와 사상을 중심으로 한국 선사상을 다룬 서문은 한국 불교의 선불교 전통이 중국불교의 선불교 전통만큼 일찍이 형성되어 계승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줌으로서 동아시아 선불교 전통에 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했을 뿐 아니라 학문적 자료를 제공하여 신선한 충격을 안겼다.

『지눌전서』가 절판됨에 따라 1991년 *Tracing back the Radiance: Chinul's Korean Way of Zen*(『회광반조: 지눌의 선사상』, 이하 『회광반조』)²³⁾라는 축

약본이 출간된다. 버스웰은 『지눌전서』와 『회광반조』의 차이점과 특징을 부제목으로 분명히 밝히고 있다. 『지눌전서』의 부제목은 “지눌의 모든 저술을 소개”(The Collected Works of Chinul)라고 붙인 반면, 『회광반조』에는 “지눌의 선사상”(Chinul's Korean Way of Zen)이라고 부제목을 붙였다. 이것은 『회광반조』가 『지눌전서』에서 지눌의 선사상의 핵심만을 선택하여 만든 요약본이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최근의 불교연구 현황에 대한 조사에 따르면, 북 불교학계에 소속된 대부분의 불교학자들이 자신의 저술에 한국불교를 논할 때, 이들 책을 참고하고 인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예를 들면, 도날드 로페즈(Donald Lopez)의 *Buddhist Scriptures*(『불교경전들』, 2004), 존 스트롱(John Strong)의 *The Experience of Buddhism*(『불교경험』, 2007), 도날드 미첼(Donald W. Mitchell)의 *Buddhism: Introducing the Buddhist Experience* 등이다. 이들의 인용은 그들이 버스웰의 지눌 연구를 통해 한국불교의 역사와 사상의 중요성을 인식했다는 것을 보여 준다.

1989년 버스웰은 『금강삼매경』과 원효의 사상을 다룬 *The Formation of Ch'an Ideology in China and Korea: The Vajrasamadhi-Sutra, A Buddhist Apocryphon*(『중국과 한국에서의 선사상 형성: 위경, 금강삼매경』, 이하 『중국과 한국의 선사상 형성』²⁹⁾)을 출간한다. 이 책은 1985년에 제출한 그의 박사 논문인 *The Korean Origin of the Vajrasamadhi-Sutra: A Case Study in Determining the Dating, Provenance, and Authorship of a Buddhist Apocryphal Scripture*(『금강삼매경』의 한국 기원: 불교 위경의 저술 연대와 장소 및 저자에 관한 사례 연구)를 발전시킨 걸작이다. 이 책의 중심은 상당히 길고 중요한 서문에 해당하는 ‘study’와 상세한 주석을 포함한 『금강삼매경』의 영역 부분이다. 특히 서문은 네 부분으로 나누어 위경인 『금강삼매경』이 누구에 의해, 어디서, 왜, 어떻게 편찬되었는지에 관련된 정보와, 여래장사상과 그것이 선불교 형성에 끼친 영향 등을 상세히 밝히고 있다.³⁰⁾ 그는 이 책에서 『금강삼매경』의 저자와 기원에 관한 의문을 제기하고, 새로운 관점을 제공한다. 미즈노 코겐(Mizuno

28) Robert Buswell, *Tracing back the Radiance: Chinul's Korean Way of Zen*, Kuroda Institute, U.S.A., 1991.

29) Robert Buswell, *The Formation of Ch'an Ideology in China and Korea: The Vajrasamadhi-Sutra, A Buddhist Apocryphon*,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U.S.A., 1989.

30) Peter N. Gregory, (Book Reviews) “The Formation of Ch'an Ideology in China and Korea: The Vajrasamadhi-Sutra, a Buddhist Apocryphon. By Robert E. Buswell, Jr.” *Philosophy East & West*, vol 54, 2004, pp. 182-184.

Kogen)과 발터 라이벤탈(Walter Liebenthal)은 이 경전이 중국에서 편찬된 위경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버스웰은 이러한 기존 학설을 반박하고, 이것이 인도에서 전래된 것도 중국에서 편찬된 것도 아닌 A. D. 685년 무렵 한반도에서 편찬된 위경이라고 주장한다. 그에 따르면, 이것을 편찬한 인물은 법랑(法朗)이다. 법랑은 초기 중국 선불교의 4대 조사인 도신(道信, 580-651) 문하에서 선불교를 공부하고, 대략 A.D. 676년에 한반도에 돌아와서 선불교를 전파한 인물이다.

또한 버스웰은 법랑에 의하여 『금강삼매경』이 한반도에서 편찬된 이후, 약 50년 사이에 이것이 중국에 전해진 것으로 가정한다. 그 이유로 그는 원효(元曉, 617-686)의 『금강삼매경론』을 언급하는데, 원효의 『금강삼매경론』은 원효 만년의 저술이며, 아마도 입적하기 바로 직전에 저술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하고 있다. 이것은 원효의 논서가 730년 이전에는 중국의 경론목록에서 발견되지 않고, 8세기 초 법장(法藏, 643-712)에 의해서 처음으로 중국에 전해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는 A. D. 685년 경 한반도에서 편찬된 『금강삼매경』은 원효의 『금강삼매경론』과 함께 법장에 의해 8세기 초에 중국에 전파되었다는 가설을 증명했다.

버스웰의 지눌과 원효에 관한 연구는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교학과 선학의 고승(高僧)들의 우수성과 귀중한 가치를 북미학계와 서구사회에 소개한 것이다. 이 연구 업적들은 그가 한국불교를 깨뚫는 탁월한 통찰력을 지니고 있음을 드러낸 것이고, 그의 철저한 문현학적 훈련과 역사학적 안목, 그리고 한국불교의 정체성에 대한 올바른 판단력이 통합적으로 이루어 낸 결작이다.

b) 한국불교의 수행 전통에 관한 연구

1990년대부터 서구의 종교학계는 의례와 수행에 관심을 집중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연구경향은 불교학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어 불교수행의 연구에 종교학적이고 문화적인 접근방법을 도입하게 된다. 심재관은 “최근 들어 불교학연구에 인류학적이고 사회학적 연구가 개시된 것은 문현학이 불러 낸 과거의 미라와 현재 불교 국가 내의 신앙 형태 사이에 있는 엄청난 차이를 보여 준 것에 대한 반성이 부분적인 이유였다.”³¹⁾ 고 설명한다. 버스웰도 북미불교학계의 연구경향에 발맞추어, 1992년 『한국 선 수행기』를 출간하였다. 이것은 그가 송광사에서 수행한 5년 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불교의 근현대사, 사찰의 일상생활, 선방의 수행생활을 상세히 묘사하고 있다. 특히 일제 강점기(1905-1945) 동안

31) 심재관, 『탈식민지시대의 우리의 불교학』, 책세상, 2001, p. 42.

변화한 한국불교의 상황을 자세히 분석하고, 1970년대 한국불교의 선방에서 수행자들이 어떻게 생활하는지를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다.

선원의 일상생활을 통해 한국불교 선불교의 전통수행의 특징을 드러내려는 이 책은 D. T. 스즈끼에 의해 서구에 전해졌던 탈세속적인 선승의 이미지를 바로 잡는데 공헌했다. 스즈끼가 깨달음을 얻은 선사들의 우상파괴주의, 급진적인 대화법과 수사법, 기존의 종교의식과 체계화된 도전이라는 선 수행자의 통속적인 이미지를 서양에 소개했다면, 버스웰은 규칙적인 선방 생활, 교육프로그램, 규칙적인 명상의 중요성을 소개함으로써 선 수행의 탈세속성을 제거하고 일상생활과 선 수행의 관계에 집중하여 소개했다. 그는 한국불교의 선원에서는 선승들이 좌선하는 것보다 선원을 운영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보여 주었고, 선승들이 어떻게 자신에게 주어진 소임을 다 하는지, 선원의 운영 자금과 매일의 행정 업무를 행하면서 어떻게 수행을 하는지를 소개하고 있다. 따라서 그는 이 책을 통해 한국불교의 선원 전통은 선 수행과 사찰에서의 일상생활과의 유기적인 관계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했다. 그는 불교수행이란 불교교리와 수행과 일상 생활이라는 세 가지 요소가 유기적으로 관계하는 실천이고, 선원은 이러한 실천을 통해 궁극적으로 깨달음에 이르게 하는 공간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선승들이 실제로는 매일 무엇을 하며, 어떻게 실천적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가를 아는 것은 불교수행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요소라고 설명한다.

버스웰의 『한국 선 수행기』는 북미주에서 한국불교의 이해를 위한 필수 교재로 사용되고 있으며, 그의 명확하고도 함축적인 묘사로 인하여 한국불교의 선원전통이 서구사회에 알려지고 있다. 박진영은 한국불교의 어떤 점을 중요하게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을 미국인들에게 던진 결과, 그들이 생각하는 한국불교의 특징 혹은 장점이 버스웰의 생각과 일치한다는 것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대부분의 저자들이 한국불교의 승가를 소개하면서, 한국 사회가 빠르게 세속화되어 간에도 불구하고, 한국불교는 동아시아에서 가장 강력한 승단 조직을 가지고 있으며, 이들 선원은 송나라 시대의 선원의 모습이 어떠한 형태였는지를 제시해 준다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 미국 대중 매체에서 선불교를 전형화하면서 범하고 있는 많은 잘못을 수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한국 선원은 우리에게 선적인 삶과 불교의 경전이 어떻게 서로 보완하여 공존하도록 형성되어 있는지 그 살아 있는 본보기를 제공한다.³²⁾

버스웰의 『한국선 수행기』는 한국불교의 선불교 전통을 종교학적이고 문화적

32) 박진영, 인터넷에서 다운로드한 글이라 정확한 페이지를 알 수 없음.

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서구인들에게는 매력적인 저술이다. 한국불교의 선불교 전통은 중국 선종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고, 오늘날까지 계승해 오는 탄탄한 승단조직을 갖추고 있으며, 그곳에서의 수행은 기이한 행위가 아니라 일상적인 절 생활이 수행이며,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나치게 교학중심의 한국불교학 연구경향으로 인하여 한국불교에 대한 종교학적이고, 문화적이고, 사회학적인 연구 자료가 부족한 현실을 감안한다면,³³⁾ 한국종교 연구자들에게도 유용한 연구 자료가 될 것이다.

c) 동아시아 맥락 속에서 한국불교 연구

동아시아 맥락 속에서 한국불교 바라보기는 버스웰의 한국불교 연구의 근본적인 관점이다. 그는 한국불교 연구를 동아시아의 맥락 속에서 바라보기 위해서는 다른 지역 연구자들과 협동을 유지해야 하며, 그 길만이 한국불교학이 고립을 벗어나는 길이라고 강조한다. 그는 1985년에 제출한 그의 박사 논문 『금강삼매경의 한국 기원』에서부터 한국불교를 동아시아 불교 전통과의 관련성이라는 관점에서 연구해 오고 있다. 그는 동아시아불교전통이라는 우산 속에 아시아 전 지역을 포괄하기 위하여 인도에서 불교가 중국을 통해 한국을 거쳐 일본에 전해졌다 는 단선적인 전래설을 비판하고, 동아시아 삼국이 상호 영향을 주고받은 상호문화주의적인 관점을 부각시켰다. 그는 한국불교의 역사, 문화, 사상을 동아시아의 맥락과 연관 속에서 보지 않는다면 오히려 전통을 왜곡시킬 수도 있음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대부분의 연구에서 나는 한국불교를 단순한 ‘한반도에서의 불교’가 아니라, 대신에 교리, 수행, 법맥, 의례 등의 상호 연관을 내포하는 하나의 광범위한 종교적 네트워크 안에서의 중심축으로 생각하는 것이 보다 유익할 것이라고 제안해 왔다. 사실, 나는 ‘한국 불교’라는 범주에 대하여 반성해 볼 때 한국이 나머지 아시아 지역, 특히 동북아시아의 다른 지역에서 결코 분리되지 않았다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만약 우리가 한국불교가 성장한 동아시아라는 보다 넓은 맥락을 무시하고 그 전통을 따로 화려하게 떼어놓고 다룬다면, 우리는 이 전통을 밝히기보다는 오히려 왜곡할 위험에 처할 것이라고 믿는다.³⁴⁾

동아시아 맥락 속에서 한국불교 바라보기는 랭카스터에서 시작되었지만, 버스

33) 김성례 외, 「26. 로버트 버스웰과 해외의 한국불교 연구」, 『한국 종교문화 연구 100년』, 청년사, 1999, p. 109.

34) R. Buswell, “Korean Buddhist Thought in East Asian Context,” p. 219.

웰은 그것을 한국불교 연구에 적용하여 연구업적을 형성했다. 그렇다면 그들은 어떻게 이러한 관점을 확립하게 되었을까?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짐작해 볼 수 있다. 첫째는 문헌학과 지역학의 병행이다. 버스웰이 편집한 *Currents and Countcurrents*(『흐름과 반흐름』)³⁵⁾과 황유복·진경부의 『한·중불교문화교류사』³⁶⁾는 A.D. 4세기부터 14-15세기까지 한국불교의 승려들과 중국불교 승려들이 상호문화주의적 입장에서 불교전통을 발전시켜 왔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들 연구는 한국불교 전래 초기부터 고려시대까지 한반도에서의 불교가 동아시아불교, 보다 엄밀히 말하면 중국불교와 단절되어 발전한 사실이 없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동아시아불교권의 상호문화적 발전 형태를 올바르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지역을 역사, 문화, 종교, 철학, 정치, 경제, 민속까지를 종체적으로 고려하는 지역학적 접근방법이 필요하다. 이 지역학 접근방법은 한국불교 승려들이 동아시아불교전통 혹은 인도와 중앙아시아를 포함한 범아시아불교전통과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서 보편적인 불교사상을 지향하고 확립하려고 노력했다는 사실을 발견 가능하게 한다. 따라서 동아시아 불교 맥락 속에서 한국불교 연구 관점은 문헌학과 지역학이라는 두 가지 연구방법을 병행한 결과이다.

둘째는 현재 북미 불교학계의 현실의 반영이다. 그들은 현실적으로 북미학계에 한국불교학을 정립시키기 위해서는 동아시아의 다른 지역들과의 연계 작업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현재 북미 불교학계는 중국불교, 일본불교, 인도·티벳 불교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대다수를 차지한다. 랭캐스터와 버스웰에 의해 구축된 북미 한국불교학은 이들 두 학자들의 학문업적과 다른 지역 불교학자들과의 소통이 만들어 낸 산물이며, 이들이 인도불교, 중국 불교, 일본불교에 관한 전문가적 연구 역량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기도 했다. 따라서 그들은 한국불교 연구방향을 동아시아 불교전통에서의 연관성이라는 한국불교의 정체성을 역사 속에서 발견한 것을 현실 학문세계에 적용시킴으로서 일석이조의 성과를 거둔 것이다. 이것은 버스웰이 “오랫동안 한국학과 같은 작은 분야가 국제무대에서 활동하기 위해서는 지역적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인식했고, 그래서 한국 학자들끼리만의 소통을 넘어 중국과 일본의 학자들과 소통하는 것이 필수불가결하다고 인식했다.”³⁷⁾고 토로하는 것에서도 알 수 있다.

동아시아 불교전통의 맥락 속에서 한국불교를 바라보아야 한다는 버스웰의 이

35) Robert Buswell(ed.), *Currents and Countcurrents: Korean Influences on the East Asian Buddhisttraditions*, 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Press, U.S.A., 2005.

36) 황유복·진경부, 『한·중불교문화교류사』, 권오철 옮김, 도서출판 까치, 1993.

37) R. Buswell, “Korean Buddhist Thought in East Asian Context,” p. 219.

주장은 한국 불교가 중국불교의 아류가 아니라, 동아시아 불교전통을 형성시킨 주류이자 주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중국불교에서는 한국불교 승려들의 저술들이 중국인들의 저술들과 동등하게 영향을 준 것을 감안한다면, 중심에서 주변부를 향해서만 볼 것이 아니라 주변부에서 중심을 향해서도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이다.³⁸⁾ 이러한 그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그는 인도에서 중국으로 불교가 전래되고, 중국에서 동아시아의 모든 지역으로 불교가 전파되었다는 일방적인 동방확산론을 반박한다. 즉 한국불교가 일본으로 불교를 전파한 ‘교량’의 역할만을 수행한 것이 아니라, 동아시아불교전통을 확립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한 주역임을 보이기 위하여 『흐름과 반흐름』에서 그러한 증거들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1998년 “Imaging ‘Korean Buddhism’: The Invention of a National Religious Tradition”(이하 「상상의 한국 불교」)³⁹⁾에서 그는 ‘한국불교’란 개념은 근대적 산물이라고 주장한다. 그는 “‘한국 불교’란 1930년대 일제 강점기를 시작으로 형성된 민족주의적 시각의 산물이기 때문에, 이러한 민족주의적인 ‘한국 불교’라는 개념을 조선시대 이전의 전통 한국 승려들에게 적용시킬 수 없다. 그리고 전통적 한국 승려들은 ‘한국의’ 승려라는 민족이나 국가적 구별보다는 법계나 종파적 구별에 의한 보편적인 불교와 범아시아적인 종교적 구조에서 스스로의 정체성을 구축해 왔다.”고 주장한다.⁴⁰⁾ 그러므로 그는 한국불교의 고유한 정체성을 찾으려는 불교학자들의 노력은 시대착오적이라고 규정하고, 최남선(1890-1957)에 의해 주장된 한국불교의 정체성을 회통불교라고 규정하는 시대적 담론을 허구라고 비판한다.

한국학계에서 회통불교 혹은 통불교의 비판은 심재룡⁴¹⁾에 의해 1985년과 1989년 두 차례에 걸쳐 발표되었다. 심재룡은 “회통성이란 불교사상의 보편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유독 윈효와 한국불교만의 특성이라고 볼 수 없다. 이것은 일제 강점기에 일본의 한국역사의 왜곡에 반발하여 최남선이 주장한 것을 한국학자들이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인 민족주의적 담론이며 호교론적 성격에 불과하다.”고

38) 같은 논문, p. 223.

39) Robert Buswell, “Imaging ‘Korean Buddhism’: The Invention of a National Religious Tradition,” In *Nationalism and the Construction of Korean Identity*, Korean Research Monograph no. 26, (ed.) by Hyung Il Pai and Timothy R. Tangherlini, Berkeley: Institute of East Asian Studies, 1998.

40) 같은 논문, pp. 103-104.

41) 심재룡, “The history of the “Symcretic issue” in Korean Buddhism”, *Korean Buddhism*, Seoul, Jimoondang, 1999, pp. 173-180.

주장한다. 그러나 필자는 불교사상의 회통적인 특징이 한국불교의 정체성이 될 수 없다는 심재룡의 의견에 동조하기 어렵다. 인도불교와 다른 지역적 불교의 특징은 원형에 해당하는 인도불교가 지역의 대중들에게 어떻게 수용되고, 해석되고, 수행되어져 그들의 삶의 향상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고찰하는 작업이다. 따라서 그의 주장처럼, 불교사상이 본래적으로 회통적인 성격을 가졌다고 해도, 불교사상에서의 회통성을 인식하고, 그것을 한국사회에 적용하고, 실천하여 한국적인 회통성을 만들어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한국적인 회통성은 불교사상의 회통성의 한국적 적응이라고 볼 수 있다.

버스웰은 동아시아 맥락 속에서의 한국불교를 연구하는 관점을 심재룡과 같은 기존 학자들의 통불교비판 담론에 적용시킨다. 그래서 그는 “동아시아 불교전통을 확립시키는 데 공헌한 전통 한국불교 승려들, 신라의 혜초나 혜동 사문 원효의 경우, 그들은 민족적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중국불교 승려들을 대할 때 민족을 뛰어넘어 하나의 종교 전통 안에서의 동반 협력자로 인식했다. 때문에 그들은 ‘한국의’라는 민족적 개념을 넘어 설수 있었다.⁴²⁾”고 설명한다. 그래서 그들은 ‘한국불교’라는 민족적 개념을 설정할 필요성이 없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원효와 혜초와 같은 전통 한국불교의 승려들이 한반도라는 작은 지역의 문화가 중국불교라는 거대 문화와 교류하면서 자신의 특수성을 인식하지 않는다면, 비록 그것이 민족적 개념으로 무장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문화의 보편성에 매몰되고 말 것이라는 것을 깨달지 못했다고 단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버스웰의 논리인 ‘흐름과 반흐름’의 입장에서 본다면, 흐름과 반흐름에 의해 서로에게 전래된 불교사상과 수행문화가 보편적 불교라는 형태로만 교류되었다고 보는 것은 문헌적인 연구에서는 가능하다. 하지만 지역학적 접근방법을 적용한다면, 흐름도 반흐름도 이미 지역적 특성이 가미된 불교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이 지역적 특성의 근본에는 민족적 개념이 도사리고 있다. 특히 흐름보다는 반흐름에는 민족을 뛰어 넘는 동반 협력자라는 인식보다는 민족과 민족이 만나는 협동의 장이라는 인식이 강했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만약 버스웰의 동아시아 맥락 속에서 한국불교연구 관점이 통불교비판의 경우처럼 지나치게 보편성에 무게중심을 둔다면, 한국불교를 중국불교의 아류로 전락시키고 마는 오류를 범하게 된다. 따라서 한국불교를 동아시아 맥락 속에서 바라보는 관점에는 문화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동시에 포함하는 문화상호주의적 배경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

42) R. Buswell, “Imaging ‘Korean Buddhism’: The Invention of a National Religious Tradition,” pp. 103-104.

III. 결론

한국불교와 만난 이후에 펼쳐진 로버트 버스웰의 학문적 여정과 업적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지난 38년 동안, 한국불교학을 북미불교학계에 정착시키기 위해 물심 양면 노력한 그의 업적은 한국불교사에 영원히 빛날 것이다. 또한 한국불교학의 연구를 작은 지역학에 머물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한국불교를 동아시아 불교전통의 맥락 속에서 바라보는 관점에서 탄생되어진 그의 학문적 연구업적은 미래 연구자들에게 귀감이 될 것이다. 그의 관점은 미래 한국불교연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자 과제이기 때문이다.

버스웰의 지난 30년간의 노력은 북미불교학계에서 여러 가지 불리한 조건에 놓여 있었던 한국불교학 연구를 중국 및 일본 불교와 어깨를 나란히 하도록 만들어 놓았다. 만약 한국불교가 그를 만나지 못했다면, 북미불교학계에서 한국불교는 아직도 쓰촨학이나 광동학과 같이 작은 지역의 불교 전통으로 전락하여 하나의 학문분야로 정착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한국 불교는 다행히도 버스웰을 만나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21세기 한국불교의 세계화를 위한 발판을 구축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발전은 한국불교와 버스웰의 상생의 만남의 결과이고, 이 상생의 만남은 앞으로도 계속되기를 바란다.

주제어: 로버트 버스웰, 한국불교, 한국불교학, 북미 불교학계, 한국선불교

원고접수일: 2013년 10월 10일

심사완료일: 2013년 12월 6일

게재확정일: 2013년 12월 12일

《참고문헌》

- Robert Buswell, *The Korean Approach to Zen: The Collected Works of Chinul*, 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Press, U.S.A., 1983.
- _____, *Tracing back the Radiance: Chinul's Korean Way of Zen*, Kuroda Institute, U.S.A., 1991.
- _____, *The Zen Monastic Experience: Buddhist Practice in Contemporary Korea*.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2.
- 『파란눈 스님의 한국선 수행기』, 김종명 옮김, 서울, 예문서원, 1999.
- _____, *The Formation of Ch'an Ideology in China and Korea: The Vajrasamadhi-Sutra, A Buddhist Apocryphon*,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U.S.A., 1989.
- _____, "Imaging 'Korean Buddhism': The Invention of a National Religious Tradition," In *Nationalism and the Construction of Korean Identity*, Korean Research Monograph no. 26, (ed.) by Hyung Il Pai and Timothy R. Tangherlini, Berkeley: Institute of East Asian Studies, 1998, pp. 73-107.
- _____, "Korean Buddhist Thought in East Asian Context," 불교학 보 제60집, 동국대학교 불교문화연구원, 2011, 218-231쪽.
- Robert Buswell(ed.), *Currents and Countcurrents: Korean Influences on the East Asian Buddhist traditions*, 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Press, U.S.A., 2005.
- L. Lancaster, "The Role and Significance of Korea Son in the Study of East Asian Buddhism," *Chung-Haw Buddhist Journal* 13-2, 2000.
- Richard D. McBride, II, "The Study of Korean Buddhism in North America: Retrospective and Recent Trends", *The Review of Korean Studies* 9-1, Seoul: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2006, pp. 27-48.
- Charles Muller, "Review of Cultivating Original Enlightenment: Wonhyo's Exposition of the Vajrasamadhi-Sutra, by Robert E. Buswell, Jr." *International Journal of Buddhist Thought & Culture*, vol 10, 2008, pp. 139-146.
- Peter N. Gregory, (Book Reviews) "The Formation of Ch'an Ideology in China and Korea: The Vajrasamadhi-Sutra, a Buddhist

- Apocryphon. By Robert E. Buswell, Jr." *Philosophy East & West*, vol 54, 2004, pp. 182-184.
- Meg Sullivan, "Building a Case for Buddhist Studies at UCLA," *UCLA College Report*, volume 1, Fall 2003-Winter 2004.
- 심재관, 『탈식민시대 우리의 불교학』, 서울, 책세상, 2001.
- 황유복·진경부, 『한·중불교문화교류사』, 권오철 옮김, 서울: 도서출판 까치, 1993.
- 김종명, 「북미주학계와 선불교」, 『미국학』, 23집, 2000, 167-193쪽. 「만해대상(포교부문)수상자 로버트 버스웰」, 『유심』 33호, 2008, 114-130쪽.
- 김성례 외, 「26. 로버트 버스웰과 해외의 한국불교 연구」, 『한국 종교문화 연구 100년』, 서울: 청년사, 1999, 108-111쪽.
- 박포리, 「세계의 불교석학-(26) 미국 UCLA대 로버트 버스웰 교수」, 법보신문 756호, 2004년 5월 31일.
- 박진영, 「미국사회에서 한국 불교에 관한 관심이-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 『미주현대불교』, 2004.
- 심재룡, "The history of the 'Symcretic issue' in Korean Buddhism", *Korean Buddhism*, Seoul, Jimoondang, 1999, 173-180쪽.
- 최 로덴, 세계를 향한 한국 불교(학)의 화두! -한국 불교(학) 관련 저술이 영문으로 번역되지 못하는 이유- 『불교와 문화』, 2004년 7,8월호, 37-53쪽.

〈Abstract〉

The Life and Academic Achievements of Robert E. Buswell, Jr.

Kim, Suah(TongMyong University)

The goal of this paper is to introduce the life and academic works of Robert E. Buswell, Jr., who is currently a professor at the Department of Asian Languages and Cultures and the director of Center for Buddhist Studies in University of California at Los Angeles. Robert E. Buswell, Jr. is being introduced because he has been an eminent Buddhist scholar, having laid the groundwork for the study of Korean Buddhism in North America. He is widely regarded as the founder of the study of Korean Buddhism in North America because he has made significant contributions to the globalization of Korean Buddhism.

In this paper, three approaches are used to evaluate Buswell's activities and academic achievements in relation to Korean Buddhism over the last 38 years. First, his life stories are recounted to show how he came across Korean Buddhism and became a Seon/Zen practitioner in Korea up to how he became a Buddhist scholar in the U.S. Second, the past and present of the study of Korean Buddhism in North America are illuminated, and from this approach, his roles in and contributions to the Korean Buddhist studies are eventually revealed. Third, among his academic works, the most significant works relating to Korean Buddhism are introduced to divide the three steps into periods. The first is the research on the eminent monks of Korean Buddhism, Jinul and Wonhyo, before the 1990s; the second is the research on the Buddhist practice tradition in Korea after the 1990s; and the third is the research on his fundamental viewpoint of the study of Korean Buddhism, which takes a

look at the Korean Buddhist thoughts in the East Asian context. In particular, Buswell's viewpoint of taking a look at the Korean Buddhist thoughts in the East Asian context provided a fresh standpoint to the Korean Buddhist scholars who take a look at the Korean Buddhist thoughts only in the Korean context. His perspective of viewing East Asian Buddhism as the dynamic bilateral relationship called "current and countcurrent" appropriately exposed the characteristics of mutual culturalism in Buddhism. As for the case of the identity of Korean Buddhism that he mentions in "imaging Korean Buddhism," however, if he insists that the current-countcurrent is only for cultural universality and is not based on cultural particularity, it will highlight the contradiction that the countcurrent serves only the current and not itself.

Key Words: Robert Buswell, Korean Buddhism, The Study of Korean Buddhism, Buddhist Studies in North America, Seon/Zen Buddhism in Korea